

##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증진방안

**수행과제명** ...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과제책임자** ... 김 이 선 연구위원

☎ Tel: 02-3156-7158, ✉ e-mail: yskim@kwidimail.re.kr

### 요 약

현재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결혼이민자의 적응, 가족관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회통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는 정책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음. 결혼이민자는 가족 이주자와는 달리 가족들과 출신 배경이 다르다는 점에서 다소 특수한 점을 지니고 있음. 이들이 한국인과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발전시켜 사회 주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정책 차원에서의 본격적이고 전향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함.

### 1. 배경 및 문제점

- 사회적 관계는 이주자가 사회통합 상에서 제기되는 문제 해결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이주자 개인의 적응과 심리적 안녕 뿐 아니라 가족관계, 나아가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있어서도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

용함. 하지만 그간 정부 정책에서는 사회통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 이슈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지 못했음

-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현황을 점검하고,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에 긍정적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관계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였음
- 특히 결혼이민자의 개인, 가족적 특성이나 사회관계 유형별 비교를 통해 사회적 관계 차원의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집단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제언함

## 2. 조사 및 분석결과

### 2-1.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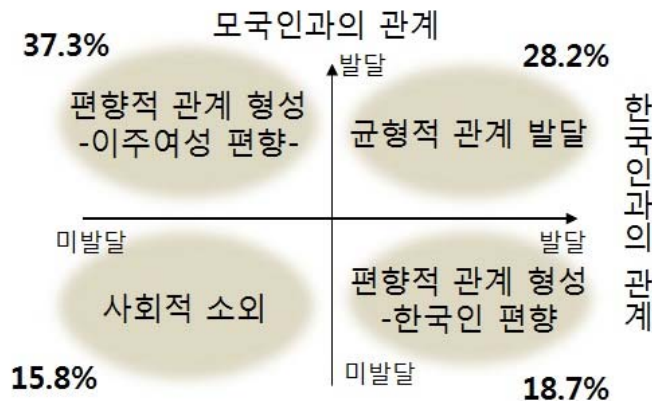
- 경상권·충청권 8개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조선족 제외),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5개국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 54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2-2.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인터뷰

- 서울, 대구,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등지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24명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
-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중국, 태국 총 7개국 출신

### □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유형

-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크기와 한국인 및 모국인 비율을 기준으로 소외형, 모국인 편향형, 한국인 편향형, 균형형 4개 유형으로 유형화함



[그림]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분류

- 모국인 편향형 37.3% >, 균형형 28.2% > 한국인 편향형 18.7% > 소외형 15.8% 순으로 나타남

### □ 사회적 관계 유형과 사회통합의 관계

- 사회적 관계 유형별로 한국생활만족도, 문화적 유능감, 사회생활 참여도 등 사회통합의 제반 측면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소외형과 모국인 편향형이 사회통합 수준이 현저히 낮는데 비해 한국인 편향형과 균형형의 사회통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이주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공백(소외)의 문제

- 여성결혼이민자 대부분은 한국 생활 초기, 이주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공백을 경험함. 초기 이주여성이나 단독으로 결혼해 온 여성들의 경우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공백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큼. 또한 남편과 단둘이 핵가족을 이룬 여성결혼이민자나 결혼 초기에 임신과 출산 경험을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관계가 더욱 제약될 가능성이 있음

- 사회적 고립 속에 놓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외로움, 답답함, 우울감 등을 경험하며,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정서적·물질적 지원, 정보 등에서 소외되기도 함

#### □ 모국인과의 관계의 의미와 한계

- 가족단위 이민자와 달리 결혼이민자들은 문화적, 종족적 배경이 다른 성원들과 일상을 공유해야 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결혼중개업체 등을 통해 모국인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적 관계의 물꼬를 트게 됨
- 한국인 가족원들은 특히 모국인과의 관계 형성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임
- 모국인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자신의 존재 확인, 각종 어려움 및 스트레스 해소의 기회를 가짐. 또한 정보 제공 및 일상 생활에서의 지원, 긴급 상황 시 지원 등 ‘유사 친족’과 같은 기능을 함
- 초기 적응이 진행된 후에는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모국인 네트워크 가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또한 모국인 네트워크의 사회적 역량 미비, 짧은 역사 등으로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한계도 일부 존재함. 이외에 모국인 관계가 지니는 폐쇄성이 갈등을 야기하여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기도 함

#### □ 한국인과의 관계의 중요성과 현실

- 초기 가족 의존적 관계에서 가족 외부의 한국인과의 관계에 우선순위

를 두는 경향이 발견됨. ‘자녀’와 관련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욕구가 커짐

- 대부분 남편이나 자녀 등 가족을 통해 한국인과의 관계를 형성함. 스스로의 활동을 통해 한국인과의 지속적 관계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음.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활동이 일시적이거나 관계를 맺는 한국인과의 큰 연령차, 한국어 소통의 문제, 한국인들의 차별적 태도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 한국인들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한국인 대상의 외국어 교육, 문화 교육 활동 등 다양한 배경의 이들과 폭넓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함. 관계의 자신감 축적 및 호혜성을 기초로 한 지속적 관계 발달도 가능하게 됨

### 3. 정책제언

#### 제안1)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 기초 확립

-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초 명시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제1조)을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성원으로서는 제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내용으로 개정
  -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부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각종 활동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장애요인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 명시

- 현재 주요 사업 범위를 설정하는 제5조-제11조 수준으로 ‘다문화가족의 사회활동 활성화’ 조항 신설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해 향후 수립될 기본계획에서도 핵심 정책목표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발전 및 사회활동 활성화 채택
-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등 관련 통계에서도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사회활동 관련 자료 생산·관리

## 제안2) 사회적 소외 위험군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적극적 대처

-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초기에 이용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의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소외 위험군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적극적 대처
- 물리적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 거주자, 가족갈등으로 외부와의 관계가 자유롭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합동으로 해당 상황에 처한 결혼이민자를 파악하여 정기적인 방문 상담 제공, 소외지역 순회 교육이나 동향출신 모임을 활성화하는 방안 검토
- 국제결혼부부의 이혼, 사별이 증가함에 따라 이혼·사별 등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 형성에 장애를 겪게 되는 결혼이민자에 대해 이들이 참여하는 자조모임 운영 등 대안 강구

## 제안3)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가족 지지 확립

- 남편이나 시부모 등 가족이 참여하는 교육이나 가족문화 프로그램, 상담 등을 통해 가족원들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가 지니는 가치를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태도 형성
- 2011년부터 제도화된 국제결혼 예비배우자 교육에서 안정적 가족관계 형성과 관련된 내용을 확충하여 다루는 방안 검토

#### 제안4) 한국인과의 수평적 관계 형성 기회 확대

- 한국인과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성격을 지닐 수 있도록 자신의 출신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통해 한국인과 관계를 맺는 기회 확대
- 지역 성인 대상 소수언어 교육 프로그램, 출신문화 강습회, 결혼이민자-한국인 상호 언어교습 프로그램 등

#### 제안5)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을 위한 브릿지 프로그램 개발

-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사회적 관계 역량 증진 프로그램과 실제 자원봉사나 단체활동과 같은 사회활동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 여성이나 소수자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프로그램 추진 경험이 있는 NGO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시범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마련
- 시범 프로그램의 현장 적합성, 효과성 검증을 거쳐 성과가 높은 프로그램을 선발해 보급

#### 제안6) 결혼이민자 모국인 네트워크의 기능 확립

- 모국인 네트워크 리더 대상 리더십 교육, 리더 모임 개최
- 지자체 차원의 ‘(가칭)결혼이민자대표회의’ 등 모국인 네트워크에 대해 긍정적 기능 활성화

#### 제안7) 기관, 단체, 기업 차원의 인종·문화간 관계 증진 프로그램 실시

- 기관이나 단체별로 적용할 수 있는 인종·문화간 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 중장기적으로는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이를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 워크숍 추진 인력 양성·파견

#### 4. 기대효과

-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에 관한 정책의제 구체화, 다문화가족 정책 의제의 확대
-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적 접근 방향 설정
-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정책의 질적 수준 제고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관계부처 :** 법무부, 행정안전부